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진성, 임은아, 박민규, 박지유, 유혜선, 김윤아, 김연진
지도교수 김경화

연구의 필요성

혈액보유현황과 헌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혈액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혈액사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중이 헌혈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대중의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능동적,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헌혈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 본 연구는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후 헌혈 관련 지식, 태도, 이타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유사실험연구**이다.
- 헌혈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카드뉴스** 형태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함
- 교육프로그램은 **1주 씩 총 3차시**에 걸쳐 진행함

연구대상

- 무작위로 선정된 C지역에 소재한 C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1학년 학생 20명**

자료수집

-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전,후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설문지** URL 배부

연구도구

헌혈에 대한 지식

- 공정희(2015)가 수정보완한 14문항

태도

- 한미희(2004)가 수정 보완한 22문항(1-4점 척도)

이타성

- 조학래(1996)가 개발한 18문항(1-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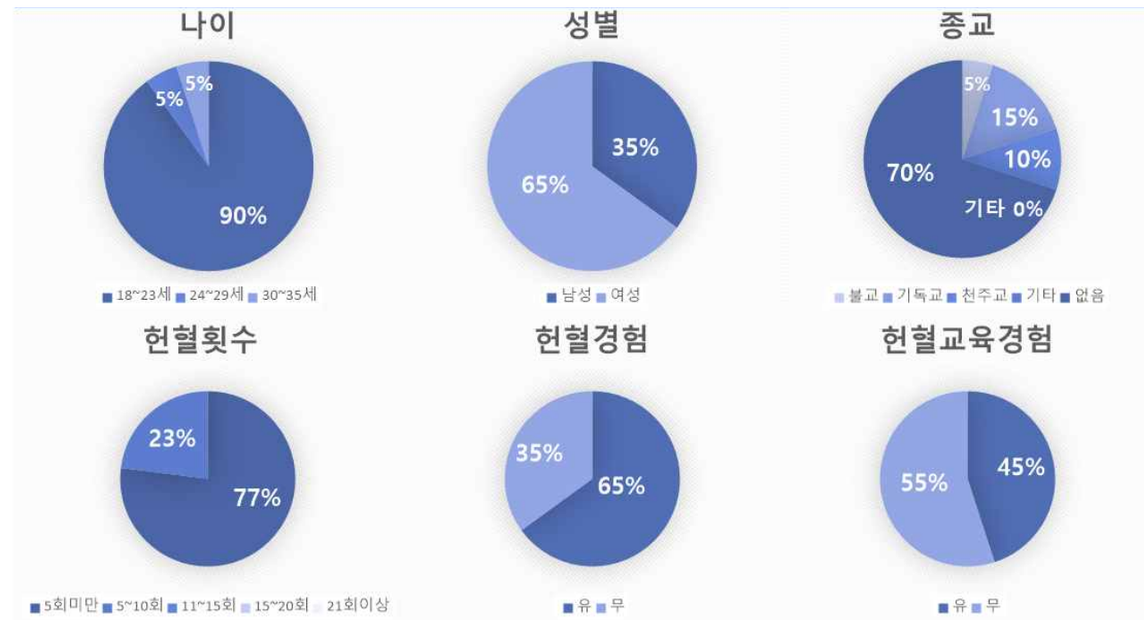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이용함.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함
2.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지식, 태도, 이타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함
3. 대상자의 교육 전후 헌혈에 대한 지식, 태도, 이타성 간 차이 분석은 **paired t-test와 교육 전후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함

연구결과

- **일반적 특성**



-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전후 대상자의 헌혈 관련 지식의 변수 정도의 차이**

헌혈 관련 지식 점수는 헌혈 인식 개선 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 시행 전에 비해 교육 지식 관련 점수는 0.3점 상승함. 이는 대상자가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헌혈 관련 지식을 이미 획득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구분	pre-test M ±SD	post-test M ±SD	Difference	t	p
1. 지식	9.95±2.41	10.25±2.19	0.3	.346	.367
헌혈 지식 관련 기준	5.2±1.60	5.1±1.51	-0.1	-.191	.425
헌혈 관련 상식	0.95±0.75	1±0.72	0.05	-.203	.420
헌혈 실시 및 헌혈 후 관련지식	3.8±1.10	4.15±0.98	0.35	-.836	.207

-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전후 대상자의 헌혈 관련 태도의 변수 정도의 차이**

헌혈 관련 태도 평균은 헌혈 인식 개선 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 시행 전에 평균이 0.16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교육 기간과 횟수가 대상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추후 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pre-test M ±SD	post-test M ±SD	Difference	t	p
2. 태도	3.08±0.34	3.24±0.33	0.16	-.1.488	.077

-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전후 대상자의 헌혈 관련 이타성의 변수 정도의 차이**

헌혈 관련 태도 이타성은 헌혈 인식 개선 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 시행 전에 평균이 0.07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심리적 요소인 이타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대면의 카드뉴스를 제공한 교육 방법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pre-test M ±SD	post-test M ±SD	Difference	t	p
3. 이타성	3.23±0.31	3.3±0.47	0.07	-.1.391	.090

논의

- 교육 후 헌혈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헌혈에 대한 태도의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헌혈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교육 전에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교육 후 **이타성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헌혈이란 행위에 대하여 봉사정신이나 이타성보다는 기념품, 봉사시간 등 각종 강화물들의 영향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 대상이 헌혈에 관심이 많은 간호학과 학생 대상이라 헌혈 기준 관련 지식이 교육 전에도 높았으므로 교육의 효과에 있어 큰 변화를 볼 수 없었다.
- 교육 후 헌혈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는 어느정도 향상되었으나 이타성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향후 이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제언한다.